



Occasional Paper Series

9 · 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The World After Sept. 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2002. 6. 26.

필자 약력

Francis Fukuyama

미국 Cornell대 추, Harvard대 정치학 박사

미국 RAND연구소(1979~1980, 1983~1989, 1995~1996), 국무부(1981~1982, 1989),
George Mason대 공공정책학 교수를 거쳐 현재 Johns-Hopkins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임.

저서로는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Property”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가 출판되었음.

특히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은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 셀러에 올랐음.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세계경제연구원의 특별강연회에서 다시 강연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본인의 지난 번 강연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의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하다. 금융위기 이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지난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 본인은 워싱턴DC에 살면서 교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들은 9·11 테러사태 이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것 외에는 말하거나, 글 쓰거나,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건이 있던 아침, 본인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 우리는 무역센터에서 일어난 광경을 TV를 통해 보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 밖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미국 국방부 건물로 돌진한 비행기에서 치솟은 커다란 구름기둥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던 까닭에, 본인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어 그들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하루 온종일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사건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9·11사태의 결과에 대한 진부한 말들 많이 있었다. 세계는 절대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방식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9·11사태의 결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마 한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태는 충분한 수준의 동기를 가진 집단에 대한 현대 기술사회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었다. 본인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대해 특별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지만, 그는 공격방식에 있어서 현대 기술사회의 두 가지 상징(비행기와 고층빌딩)을 사용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아주 원초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 상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9·11사태와 같은 참사를 가져온 것이다.

9·11사태 이전에 쓰여진 테러리즘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의 테러전문가들은 대량살상 테러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테러가 보통 많아야 10~20명의 사상자를 내는 폭탄테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러에 의한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취약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을 자행할 만큼 악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이 글은 2002년 1월 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장은공익재단이 공동 개최한 특별강연회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본인은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점은 본인과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지난 10년 동안 벌여왔던 논쟁에 두겠다. 본인은 1989년에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 1989)”라는 저서를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은 세계정치가 본질적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과학 및 기술의 업적은 현대 기술문명 창조에 필요한 구조들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현대 기술문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집중화된 시장경제이고 정치적 측면에 보면 현대 자유민주주의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것이 세계 정치의 본질적인 움직임이며 역학관계였다. “역사의 종언”은 단순히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있으며,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역사 발전단계의 종착지로서 여기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헌팅턴 교수는 하버드대학 시절 본인의 스승이었다. 비록 세계 정치의 본질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동료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는 본인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 그는 현대화가 아주 표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다보스 맨(Davos Man)”이라고 일컫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 말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있는 “다보스 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세계 정치가 서로 다른 문화가치와 세계를 구분하고 있는 7~8개의 문명에 따라 구성될 것이라 주장한다. 즉, 이 세계가 세계화의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점점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권들간의 분쟁으로 인해 분열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종언”과 “문명의 충돌”이 두 가지 견해는 산업화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필독서가 되었으며, 많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세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견해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9·11사태 이후 “역사의 종언”의 견해가 “문명의 충돌”의 견해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사마 빈 라덴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실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덴은 이슬람문화의 가치와 서구문화의 가치사이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투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기조는 아직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자기가 단순하게 표현해 온 견해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은 세계가 9·11사태와 같은 심각한 방식으로 변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 양쪽 모두에 있어서 현대화의 전반적인 과정은 세계정치를 구성하는 지배력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오사마 빈 라덴과 그로 대표되는 이슬람 급진주의는, 현대화 과정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나 사회를 통해 자포자기식으로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투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으며 실제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라덴과 같은 방식의 도전은 심각한 것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 정권의 몰락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도전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은 수년동안, 어쩌면 수십년동안 지속될 투쟁을 몰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도전이 실제 의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이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인 모하메드 아타(Mahammed Atta)이다. 그는 처음으로 세계무역센터에 돌진한 비행기의 조종사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현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아주 원시적인 사회생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모하메드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자로 이집트의 중산층 출신이었으며, 햄부르그에서 공부를 했고 수년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저개발국가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서구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구에는 많다. 이러한 생각은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이민자들로 인해 굳어진 것 같다. 그러나 한 개인인 모하메드는 서구를 보았고, 서구에서 살면서 물질적 안락함의 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11 테러행위를 자행할 정도로 서구사회를 싫어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화된 서구사회의 매력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본인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와 같이 거대한 현대화의 과정이 실제 세계정치를 지배하게 되리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문화에 대한 의문점부터 시작해보자. 사무엘 헌팅턴은 세계정치가 문화적 국경선을 따라 구성되어, 불화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인은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부인하지는 않는다. 실제 본인의 최근 저서인 “신뢰(Trust)”와 “대 붕괴(Great Disruption)”에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문화적 가치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서구의 가치가 뛰어나며, 전반적인 현대화 과정에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헌팅턴의 지적을 본인은 부인하지 않는다.

현대화는 합리적인 기능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일련의 일반적 법칙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문화적 전제조건들이 있다. 또 민주주의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조건들도 있다. 모든 사회가 경제적·정치적 의미에서 동등한 여유를 가지고 현대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이러한 현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팅턴이 주장해 온 것처럼,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에 서구 기독교에서 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사상과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사이에는 역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사상의 원리는 개인적인 신앙과 초월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시적 세계에서

는 보이지 않는 우주를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들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원리는 전 세계 인류의 평등과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헤겔(Hegel)이나 니체(Nietzsche), 토크빌레(Tocqueville) 등과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신교사상의 세속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독교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볼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발생이 단순히 특정 유럽지역 사람들의 생활방식(습관, 전통)에 대한 문화적 부산물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팅턴의 주장인데, 민주주의는 보편성이 없으며 단순히 특정한 종교적 전통속에서 생겨난 유럽인들의 우선권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가 세계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이 찾는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과학적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4~5세기 전에 베이컨(Francis Bacon), 데카르트(Rene Descartes) 등의 유럽 사상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발견 당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본, 유럽, 아프리카 등이 방법을 찾거나 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하다. 비록 이러한 원리가 서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적응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적응성은 기술변화의 과정과 함께 시작되는 복잡한 역사적 진행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History(역사)”를 전 세계 발전과정 전체에 걸친 인류사회의 역사적 진화라는 뜻에서 대문자 “H”로 쓴다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보면 본인은 막스-헤겔주의자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것은 순환이 아니다. 같은 발명품이 계속 반복해서 다시 발명되지는 않는다. 현대과학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 이는 경제 현대화의 진행과정을 응집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경제적 생산가능성의 지평을 나타내고자 한다.

경제 현대화의 과정은 일본, 독일, 영국,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은 충분한 이해단계를 거쳐 일종의 사회경제적 전환을 만들어내며, 이와 같은 전환은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사회들을 더욱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장을 하고 이 강연장에 모여있는 이유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 서구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이다. 이는 결국 기술이며 경제동질화인데, 이러한 기술은 현대화가 진행중인 사회들의 경제수준이 점차 비슷해지도록 보장해 준다.

현대화 과정의 다음 단계는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 성숙된 경제발전 단계로 인해 민주적 정치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커진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며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력등가(PPP) 관점에서 GDP가 대략 6,000 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은 1980년대에 이 수준을 넘어섰으며, 따라서 한국이 1987년경에 민주화를 이룬 것은 우연

이 아니다.

본인은 정치학자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적 법칙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학을 약간 좋지않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나 자연과학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정치학에 이러한 법칙이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몇 가지 보편적 상관관계 중 하나가 경제발전과 안정된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발전된 사회도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아시아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가 현대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그리고 재산권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이러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더 높은 교육수준을 받아들임에 따라, 민주적 참여의식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는 다시 정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현대화의 마지막 부분은 문화와 관계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화 발전구조의 최종단계인 이 네 번째 요소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부분이며 수렴성이 가장 취약하다. 본인은 “다보스 맨”이 장래의 모든 사회를 지배할 보편적 문화의 원형이 되리라고는 일단 믿지 않으며, 문화적 차이가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리관유(Lee Kwan Yu)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할 당시 주장하려 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그들이 정치의 본질을 결정한다고는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인은 모든 사회가 일상생활의 문화적 관점에 접근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상생활은 가족이나 이성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질적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관점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입증될 것이다. 현대화가 진행중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적 차이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며, 그 문화가 정치적 생활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현대정치의 세속주의인데,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종교는 어느 사회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서구 기독교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 제도에 대한 종교적 가치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의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있다.

사람들은 문화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이 아닌 개인생활의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현대사회의 최종적인 문화적 특성이다. 정치에서 벗어나 깊고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여,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이를 향유한다는 합의 속에서 현대사회는 세속적인 정치질서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속화의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렴성이 없다.

지금까지 본인은 기술적 변화가 경제적 수렴을 이루어, 다시 세속적 정치형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

끌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설명해왔다. 문제는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묘사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모든 그룹에게도 이러한 모델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문화적 이유로 인해 현대화의 과정에 대해 세계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하게 반발하는 지역이 있는가? 세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곳 아시아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본인은 아시아지역에 이와 같은 현대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방해할 어떤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나 규범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이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한국은 아주 급속한 경제현대화 과정을 거쳐왔다. 본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염려하며 불평을 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룩해온 민주적인 제도와 그 제도의 성공수준은 비교적 짧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비해 아주 놀랄만한 것이다. 한국은 정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문화적 수준에 대해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혼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 면에서 문화를 별도로 제쳐두고서, 향상된 생활수준과 현대기술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기꺼이 채택해 왔다.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ir Mohammed)나 리관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본인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에 저항하려는 여타 아시아 사회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시아적 가치”는 일부 아시아의 정치인들이 자국의 권위적인 정부형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GDP가 1980년대에 한국이 이룩했던 것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경우,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혹은 앞서 발전한 다른 국가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을 느끼게 되리라 여겨진다. 이는 싱가포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 아시아는 현대화의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는 이슬람이나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종류의 유일신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용적이었다. 아시아 지역은 유교, 불교, 신토(Shinto), 다오이즘(Daoism)과 같은 종교전통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항상 여유가 있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주 부실한 정부와 기본적인 정치안정의 부재에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지역의 현대화에 대한 근본적 장애나 문화적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 소련이나 여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현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인데, 이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시행의 문제이며, 시장과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관습 부재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효율적인 시장과 민주주의가 결국에 그들이 가야 할 곳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

물론 라틴아메리카는 유럽 기독교문화의 한 공동체로 시작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현대화에 대한 저항은 빈약한 제도, 부실한 정책, 아시아 같이 현대적인 것으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막는 문화적 습관 등이 아주 복잡하게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칠레, 멕시코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는데, 멕시코는 곧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주 열띤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슬람 세계를 보자. 실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현대화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더 큰 문화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패러다임(paradigm)이 다른 문화집단보다는 중동지역,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 세계에 더 크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인이 항상 생각해 왔던 이유들 중 하나이다.

이슬람 세계가 비록 상업사회로서 세련되고 아주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대사회의 기본제도를 이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터키를 제외하고는 이슬람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화를 이루어온 이슬람 국가들은 아랍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들인데, 말하자면 다소 다른 이슬람 실천교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다.

특히, 이슬람 세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하비(Wahhabis),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 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배출한 유일의 주요 문화지역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구의 정책에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현대화 과정 전부를 폐쇄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실제 가난한 모든 나라에서 현대화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TV나 세탁기, 자가주택, 약간의 재산을 갖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이다. 현재 중동의 종교 집단은 단순히 소비주의 그 자체가 퇴폐와 파멸의 징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항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저항이 얼마나 본질적인가? 이에 대한 미래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으뜸가는 문제이다.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급진 이슬람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으로 세계정치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차이점의 기본요소는 세속주의 전반에 걸쳐 나오는 차이이다. 본인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급진 이슬람집단은 모두 세속정부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정치적 목표는 종교가 정치권을 지배하는 이슬람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슬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화를 아주 흡족해 하고, 세속적인 사회를 원하고, 앞서 설명한 현대화를 기본원리를 받아들이며, 민주주의와 시장을 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수집단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러한 결과를 낳은 종교인 이슬람과는 본질적으로 깊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스만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의 중동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아주

관용적이었다. 오스만제국은 밀레(Millet)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기독교도들이나 유대교도들의 지역사회가 그들의 종교적 습관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용인되었다. 다른 이단의 전통들을 용인하지 않는 현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처럼 코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슬람이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힌두교, 기독교, 유교와 같이 복합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심각한 반(反)현대적인 것과 무관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이슬람 급진주의를 만들어낸 이슬람의 현대적 해석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나타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난과 소외, 특히 아랍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침체로 인해 자라났다. 이것이 종교와 혼합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핵심을 이룬 것이다. 본인은 뉴스위크(Newswick)지의 다보스에 관한 글에서 좀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보면 급진 이슬람주의는 파시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매우 비(非)관용적인 초기 전통에 대한 호소이며, 오랜 전통과 현대 정치조직과의 결합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외 및 전통사회 배제에 대한 19세기말 유럽의 파시즘(fascism)과 같은 종류의 대응이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것은 미래의 조류가 아니다. 현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종류의 이슬람 급진주의는 현대화를 원하는 중동지역 사람들을 크게 위협하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싸움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징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진행 과정이다. 불행히도 세계정치에 있어서 정당성은 종종 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나찌(Nazis)가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그 이념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연합군이 독일에게 이겨 영토를 점령하였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나치정권을 몰락시켰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에 대한 승리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승자를 좋아한다. 오사마 빈 라덴이 승자가 되었다면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패자로 보이며 이는 그의 호소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군사적 행동은 이데올로기적 반발을 일으킬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기다리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테러행위가 더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극적인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기본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전은 이슬람 세계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슬람교도들은 자체 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진전으로 이슬람 급진주의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가 이슬람교도 다수의 특징은 분명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위기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이슬람을 바라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에게 기회가 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보호받는 추세이지만, 이

슬람 내의 강한 반(反)현대화 경향으로 드러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교들 뿐이다. 이 문제는 회교도 자체 내의 대화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대화가 시작될 토양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급진 이슬람이 단지 추상적인 면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이러한 호소는 실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대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집단들은 결국 엄격한 이슬람 질서를 강요한 세력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사회에서 살기 싫어 한다. 이란은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인 나라인데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 중 이슬람 공화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세계를 영도할 때처럼, 이란이 이슬람 세계를 이슬람 급진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모두가 연을 날리고 축구를 하며 탈레반이 금지시켰던 TV를 시청한다는 것은 탈레반 정권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장차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원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 틀림없다. 파키스탄은 주변환경 및 9·11사태, 그리고 지난 수개월에 걸친 인도와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압력을 받아 왔으며, 마침내는 자국내의 이슬람 급진주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급진 이슬람집단이 붕괴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무샤라프(Musharraf) 장군은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이슬람 급진주의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이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다른 이슬람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미래, 좀더 직접적으로는 9·11사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장기적으로 본인은 이슬람 세계에 대해 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이 보다 자유적인 형태를 이루는데 대한 근본적인 장애는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문화적 장벽도 없다. 그러나 이슬람사회 내부간의 대화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9·11사태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 세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의 진행을 늦추는 변화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9·11사태는 여전히 세계화라는 기계에 제동을 걸 것이다. 세계 경제는 국가간을 넘나드는 상품, 사람 및 서비스의 운송을 포함하므로, 오사마 빈 라덴은 세계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놓은 것이다. 현재 운송수단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운송수단(모든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한 보안조치가 9·11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세계화를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세계경제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9·11이후에 항공편으로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두 번째 영향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군사혁신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아프간 전쟁 초기에 탁상공론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평가를 했던가 하는 점에서 다소 만족스럽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10월 초에 많은 언론인과 평론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영국과 소련을 격퇴시켰기 때문에 미국도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단 한명의 부상자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바꿀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이 지역동맹군과 효과적인 공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해 왔던 워싱턴의 인사들은 지금에야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데 대해 고마워하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공군력은 정확한 목표를 대상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다. 즉, 아군 일선의 전방 100미터 내에 있는 목표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력은 일선에서 50~100Km 떨어진 전략목표에 대해서 사용되곤 했다. 아프간 전쟁에서 바뀐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미주리(Missouri)주 또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섬에서 발진한 B-52나 B-2와 같은 항공기가 전장의 100미터 상공을 비행하면서, 건물 주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건물 하나만을 목표로 하는 폭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전에는 절대 없었던 군사수행능력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세력균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인은 미국 국방부의 썩크탱크(think tank)인 RAND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 틀에 박힌 시나리오의 변화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군사수행능력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또한 미국이 군사개입의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군사개입에 예측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 군사작전의 두 번째 국면은 무엇이며, 탈레반 축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싱턴에서는 이라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9·11사태에서 나타난 한 가지는 알 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사이에 입증할만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사담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의 손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한 주요 군사제재 조치 중 군사력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다. 1991년 당시처럼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50만의 병력을 배치하여 이라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받은 느낌 중 하나는 훨씬 더 작은 노력으로도 이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세인 정권의 취약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후세인을 반대하는 우방국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10년 동안 이 문제가 워싱턴이 논의·구상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리라는 점이다. 불행히도 이는 세계정치가 9·11 사태 이전처럼 정상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이슬람 급진주의가 문제라면,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질 의 · 응 답

[질 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귀하는 현대화가 사람들을 더욱 비슷한 형태로 따라가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가 더 비슷해졌다고 여겨지 않는다. 귀하는 현대화가 결국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더욱 더 비슷하게 만들 것으로 믿는가? 둘째, 본인은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진화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지역을 하나로 묶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귀하는 현대화가 진화를 혁명으로 바꾸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가?

[답 변] 분명히 말해 본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며 크게 보면 각종 제도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실천해 나가는 수많은 개인들의 가치는 다를 것이다. 또한 일부는 제도 그 자체까지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는 독특한 자본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재벌”, 일본의 경우에는 “케이레츄(keiretsu)”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문화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쉽게 사라지거나 서구의 모델로 대체되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만일 가족, 결혼, 이성간의 관계 등으로 개인적 가치가 더 많아진다면 최종적인 수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작다.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수렴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된다.

속도가 빨라져 왔느냐에 대해서 보면, 현재 동아시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전반적인 현대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 한국은 영국과 독일이 100~150년에 이룩한 것을 40년 만에 해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점의 부정적인 측면은 실제 현대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현대 통신기술이 현대화에 대한 인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더욱 빠르게 현대화를 이루어왔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노의 원인이다.

[질 문] 귀하의 주장은 세계화의 과정에 정치적 경향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많은 사람들은 9·11사태를 세계화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은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계화 과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견해가 있다. 과연 귀하는 세계화의 과정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자연의 질서와 같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변] 본인이 세계화가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고 언급한 적은 없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가치선택의 문제이다.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라고 생각된다. 즉, 각 나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활로인 것이다. 이는 또한 결국 장기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며 세계화에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 따라서 세계화 그 자체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의 경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자유와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과 정치, 그리고 훌륭한 정부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 세계화는 실제로 사람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본인은 오사마 빈 라덴을 서구의 노동운동가, 환경보호주의자와 같은 세계화 저항세력과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 세계화로 인해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고층건물을 폭파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테러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종교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세계화를 개선시킬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견해는 옳다. 1990년 초, 특히 워싱턴에서 취했던 세계화는 신중성이 결여되어 실제로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질 문] 귀하는 9·11사태가 안전에 대한 막대한 경제비용으로 인해 현대화라는 기계에 모래를 끼얹은 사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이 일반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나아가 테러리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에 의해 개인의 인권신장 추세가 점점 더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 변] 사실, 일반시민의 자유에 대한 실제 충격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작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군사재판을 추진한 전체적인 이유는 단순히 미국 법정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상대로 O. J. 심프슨(O. J. Simpson) 사건과 같은 재판을 다시 벌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프슨 사건에 대한 커다란 악몽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치전범 재판은 군사재판이었으며, 헤르만 괴링(Hermann Goering)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소가 이루어진 테러리스트로서는 처음이 될 무소우이(Moussaoui)를 통해 이미 나타났고, 또 바로 어제 기소된 존 워커(John Walker)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재판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지켜 보아야겠지만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는 이를 평범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일상적인 처리방식으로 보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을 실제로 체포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극도로 절제된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질 문] 헌팅턴 교수의 이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헌팅턴 교수는 현대화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수년 전에 이탈리아 작가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반드시 변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똑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답 변] 그것은 사실이며 그 속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 모든 것은 세계화로 인해 변한다. 현대화된 많은 사회들을 한 껍질 벗겨내어 사회적으로 한두 단계 내려가 보면, 현대화된 것처럼 보이는 도시는 사실상 조그만 마을이 자리를 옮겨온 것이다. 사실 마을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도시의 황폐한 이웃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 왔으며, 현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50~100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던 방식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현대화가 진행중인 사회를 살펴보면 볼수록, 이러한 종류의 습관에 대한 지속성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최근 저서인 “대 붕괴(The Great Disruption)”는 가족 및 신뢰의 붕괴, 범죄율 증가, 수많은 사회병리학적 현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탈(脫)산업화 또는 정보사회라고 부르는 사회로의 전환결과로써 미국 내에서 생겨난 극도의 개인주의 사상을 다루었다. 이러한 발전들은 부정적인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세계 여타 지역에서도 되풀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개인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전통적 사회들이 실제로 미국보다 더 훌륭하게 자신의 가치를 관리해왔다.

[질 문] 전능하신 신은 왜 테러가 발생하도록 방지하였는가? 신은 왜 테러를 막지 못했는가? 귀하의 견해로는 신이나 인류가 문명 및 세계질서의 붕괴 문제를 해결·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귀하는 미국문명과 세계질서의 개선에 동양문명이 도움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변] 왜 신이 9·11사태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는 모르겠으며, 귀하가 실제 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든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감지할 수 있는 악의 출현 속에서 신을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씨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본인은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하게 여겨져 여기에 대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도와 사회가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질 문] “역사의 종언”에 대한 귀하의 이론과 관련하여, 중국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취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알고 싶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답 변] 본인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중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항상, 교육수준의 향상, 복합적 시민사회의 출현, 그리고 현 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로 인해 정치참여의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12억 인구의 나라를 계급적이며 중앙통제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만 알 뿐이다. 사실상 이미 중국은 연방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에서 사회 각 분야로 권한이 분산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더욱 민주적인 중국으로 가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원로들이 권력을 포기할 경우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본인은 중국에 대한 단기전망을 하고 싶지는 않다.

[질 문] 과거 수세기를 돌이켜보면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분쟁이 국가들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적인 분쟁은 개인이나 비(非)국가적 행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의 군사적 접근방식에서 볼 때 귀하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둘째, 미국이 그들에게 이기거나 질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러한 개인들에게 대응할 경우 미국은 순수하게 군사적 접근방식만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및 법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인가?

[답 변] 국가의 지위는 사실 아직도 꽤 중요하다.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이 국가의 뒷받침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실상의 준(準)국가적 테러집단을 대표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맡았으며, 그의 작전기지로 망해버린 나라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그에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군사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더욱 준(準)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행위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마 유럽은 지금 수많은 알 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의 주요 은신처일 것이다.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군사적 방법보다는 법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등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질 문] 서구는 이슬람 세계에 대해 다소 상반된 견해는 가지고 있는데, 진화의 측면에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과거에 서구는 신권정치적 정부를 지지해 왔으며 시리아 및 이라크와 같은 세속적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 세계와 보다 나은 관계를 유지하여 분노와 적개심을 가라앉히고 우리 모두가 비난하는 테러리즘의 원인을 줄이고자 한다면, 중동, 체첸, 카슈미르, 보스니아 등과 같은 여러 지역에 대해 서구가 정당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다 할지라도 긴장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답 변]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생각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슬람 정책에 대한

방식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에 많은 분쟁이 계속 되어왔다는 점이다. 귀하의 언급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비추어 미국이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은 세속적인 정부가 아닌 종교적인 정부를 지원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귀하의 견해가 옳다. 또한 본인은 9·11사태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이기심(원유에 대한 이기심으로 시작하는) 및 다른 요인들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가 소위 온건한 아랍국가이며 동맹국이라는 등의 확신을 지녀왔기 때문이다.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 해법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당면과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항상 있다. 본인은 미국이 정책조정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여,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작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아랍-이스라엘간의 평화협상을 거의 성공시켰었다. 본인은 1980년대 미국 국무부 재직시 평화협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크(Barak)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낸 양해각서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평화조약을 표결에 부쳐 이스라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여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져 자리를 잡았다면, 오사마 빈 라덴이 마음을 바꾸어 “좋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시설을 폭파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특정 입장에 대한 그의 불만은 훨씬 더 앞서가리라 생각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걸프지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특별한 형태의 급진주의를 크게 붕괴시킬 조정정책이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본인은 갖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겠지만, 이슬람 세계의 급진적인 사람 및 집단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뒤이은 질문을 하겠다. 지금 현재 선진 부국들이 모두 서구국가들이며 서구국가 아닌 나라들은 이 그룹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구국가에 속하지 못한 개도국이나 체제전환중인 국가들의 개발 노력에는 문화적 충돌의 극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고유문화를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세계기준을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들은 실제로 서구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세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이 겪었던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아시아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서구문화 전반에 대한 고유문화의 확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준을 포기하고 서구의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러한 모든 기준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현상이다.

지금 현재 일본은 일본 고유문화와 서구문화 간에 같은 종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본문화가 우세해진다면 일본경제는 침체상태가 지속되겠지만, 일본이 고유문화를 포기한다면(여기서의 일본문화는 노인정치, 서열제, 조화와 교감의 가치강조를 말하는 것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비(非)서구국가들의 개발 노력과 과정이 성공을 이루자면 자국 문화를 계속 포기해야만 하는가? 결국, 전도유망한 모든 국가들이 서구문화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국가들은 부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중국의 장기전망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20년 후, 중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인가?

[답 변] 그렇다.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케이레츄”나 “재벌”과 같이 특정한 아시아의 경제 행태와 기타 제도의 취약성을 반영한다는 귀하의 견해는 옳다. 금융위기의 결과 중 하나는 아시아와 서구 제도간에 격차가 축소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앞서 언급하였던 것으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현대화의 과정이 실제 계속해서 줄곧 수렴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전 세계를 완전히 동질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모든 종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쉽기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현대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여겨진다. 변화의 범위가 생각했던 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간은 있다. 제조업의 미비로 인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왔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는 공장조직의 대안적 형태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완전한 동질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장기전망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본인에게는 중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경제전망을 밝게 하는 쪽보다는 정치쪽이라고 여겨진다. 정치쪽은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다.

[질 문] 9·11사태 발생 당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강경론자들의 우세 속에서 신속하게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사담 후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징벌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솔직히 말해 본인은 미국 관리들 대다수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은 전쟁의 전개상황과 군사기술을 보고 있노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젊고 경험 없는 대통령이 콜린 파워(Colin Powell)의 소수의견을 따랐던 것은 행운이었으며, 결국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데, 동양에서는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구별한다. 본인은 사람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고는 여기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크게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본인은 부시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강경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지 확실치 않다. 교토의정서와 다른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었던 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공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라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으로 움직일 경우 우방국들을 많이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바랄 뿐이다. 본인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군사수행능력의 발전에 왜 민감해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군사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의 패권은 과거 제국주의 패권과 다르다. 사람들이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

[질 문] 귀하의 명저 “역사의 종언”에 의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모든 심각한 대립이 공산주의 붕괴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귀하는 이를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9·11사태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대립이 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발생했다. 만약 “역사의 종언”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9·11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답 변] 본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9·11사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태가 역사의 종말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 뿐이다. 현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힘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한다.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현대화도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경제부분에서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이 부분에서도 현대화를 바라지 않았다. 오사마 빈 라덴의 극단적인 반응은 서구스타일의 현대화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나타났다.

[질 문] 본인은 귀하가 일본 및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아주 보편적인데, 이는 1980년대의 일본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보편화되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일본이 잘못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에 비해 미국은 1980년대에 쌍둥이 적자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1990년대에 훌륭한 실적으로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대한 적응가능성과 관계되는 것인가?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답 변] 일본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간단하다.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보수적 이익이 재무성과 경제정책 부처를 꼼짝 못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정책에 강한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를 부술 수 있는 일본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고이즈미(Koizumi)에게 이를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자민당은 분열되어 엄청난 정치적 대결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수어지지 않는 한, 일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보이

지 않는다.

이러한 이익은 튼튼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실제 그들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1997~1998년의 극심한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매우 역동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훌륭한 기반을 제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위기에 빠져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미국이 경제실적을 이룬데 대해서는 다소 신비스럽다. 1990년대의 괄목할만한 경제실적은 각종 제도들의 유연성, 그리고 기술 및 제도의 수렴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이루어낸 경제실적에 대한 자만에 빠져 다음에도 이와 같은 실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경제실적에 어떤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갑자기 얻은 행운이라고 생각된다.

The World After Sept. 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I am really delighted to be back addressing this Forum. It was quite a few years ago when I last spoke here. It seems like a different age,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I think a lot has happened since then. In particular, a great deal has happened in the past six months. I live and teach in Washington, D.C., and I must say that for a resident of Washington it has been impossible to think, write or talk about anything other than Sept. 11 ever since that happened.

I was in my office in downtown Washington the morning of the attacks. We were watching on television what had happened to the World Trade Center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one pointed out the window and there was a big column of smoke coming up from the plane that had crashed into the Pentagon. It was a matter of some personal concern to me because I had quite a number of good, close friends who worked in the Defense Department. So I spent that whole day trying to find out if they were safe. It turned out they all were, but it has certainly affected a lot of people's thinking about the shape of the post-Cold War world.

I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clichés generated about the consequences of Sept. 11.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anymore and that it has changed in certain fundamental ways. I do think that there is probably one fundamental change that has taken place as a result of those attacks. It was a demonstration of the extreme vulnerability of a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to a group of people with a sufficient level of motivation. I don't want to credit Osama bin Laden with anything in particular, but there was a certain genius to the attacks in the way that it used two symbols of a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 an airliner and a skyscraper -- and brought them together in this utterly original way to produce the kind of devastation that it did.

If you read through the literature that had been written on terrorism prior to Sept. 11, most terrorist experts discounted the possibility of mass casualty terrorism. They argued in fact that most people over-estimate the threat posed by terrorism because it involves usually bombs and the killing of, at most, a dozen or two dozen people. The reason that we did not take this kind of

* A presentation given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January 16, 2002.

vulnerability seriously was that in a certain sense, no one believed that there were people in the world evil enough to perpetrate this kind of attack that involved killing themselves as well as the killing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We now unfortunately know that that is entirely possible.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the world is like and how this affects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what is going on in world politics. I take as my reference point the debate that Samuel Huntington and I have been engaged in over the last decade. I put forward my own "End of History" hypothesis back in 1989, in which I argued that world politics is essentially being structured by the progress of modernization. The achie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led to the kinds of institutions that are needed to create a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which in economics is a centralized market economy and in the sphere of politics is a modern liberal democracy. The belief was that this was the essential movement and dynamic of world politics. The End of History simply referred to the fact that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e did not see a further stage to which we were going to evolve. We are no longer convinced that we were going to evolve to socialism; that modern democracy and capitalism seem to be the terminus point of that historical evolution.

Now Samuel Huntington a few years later published his book "The Clash of Civilizations". He was a teacher of mine at Harvard. We are good friends, although we completely disagree on the nature of world politics. He argued, in a certain sense, the exact opposite of my view. He said that modernization was very superficial. It produced what he called the Davos Man. I assume a lot of you are going to attend the World Economic Forum in New York at the end of the month, so you are part of this Davos Man that he rejects as a significant social phenomenon. He argues that world politics will be structured according to different cultural values and the seven or eight major civilizations into which the world is divided; that we will not have an increasingly peaceful world as democracy and markets spread through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but a world that will be fractured by conflicts across these cultural boundaries.

These two views -- the end of history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 have become standard readings in introductory international relations courses. A lot of college freshman are asked to pick the view they believe best describes the world. I must say that since Sept. 11, the end of history view has been losing out to the clash of civilizations view. You had Osama bin Laden who got up and said to everyone that this, in fact, was a clash of civilization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irreconcilable difference between Islamic values and Western values and that that is the fight he is pursuing.

But the bottom line of my talk is that I think I am still right. Now, I do not like authors who cling stubbornly to views that they have expressed simply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imagination to see that the world has changed. But I think that the world has not changed in a serious way as a result of Sept. 11. I believe that the whole process of modernization -- both political and economic -- is and remains the dominant force that structures world politics. Osama bin Laden and the kind of Islamic radicalism that he represents constitutes a desperate rear guard action by a people or a society that is threatened by this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there is ultimately no way they are going to win the struggle. Indeed, they have not won military in Afghanistan.

On the other hand, I do think that the kind of challenge that he represents is a serious one. It is not a challenge that has disappeared with the overthrow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I think this challenge is going to lead to a struggle that will persist for years, and even possibly for decad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that challenge really represents. In a certain sense, the best symbol of what that challenge is, is the terrorist Mohammed Atta. He was the pilot on the lead plane that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You might argue that the terrorists living in Afghanistan in caves represent a very primitive form of social life that rejects modernity. In fact, Mohammed Atta was not that. He was an engineer. He came from a middle class family in Egypt. He studied in Hamburg and lived for some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feeling that many people in the West have that peopl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would like to live in the West if only given the chance, which seems to be confirmed by the great flood of immigrants from third world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Yet, in Mohammed Atta you had an individual that saw the West, that lived and benefited from the material comfort that it provided and yet, somehow, hated that society sufficiently to perpetrate the act that he did. This indicates that the appeal of that kind of modernized western society may not be as universal as we would think.

Let me step back a little bit and explain why I think I'm right and why it is that I think that this larger process of modernization is, in fact, going to be the one that will dominate world politics. Let me begin with a question of culture. Samuel Huntington argues that world politics will be structured along cultural lines and that those will be the key sources of friction and conflict. I do not for a minute deny that culture is extremely important. In fact, my last couple of books, "Trust" and "The Great Disruption", have really dealt with the question of values and how important values are to the functioning of a modern, liberal democracy. I do not deny Huntington's point that western values are distinctive and that there is a cultural background to the whole process of

modernization.

Modernization is not just a series of impersonal institutions that are rationally functional and therefore universally adopted by everybody. There are certain cultural preconditions for developing a modern, technological, capitalist society. There are also certain cultural conditions that are necessary for developing a functioning democracy. Not every society can modernize in an economic and political sense in equal ease because not all of them have the requisite cultural values that enable this sort of modernization to take place.

It is further not an accident, as Huntington himself has argued, that modern liberal democracy sprang up first in the Christian West because there is a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Christiani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liberal democracy. Christianity, in a sense, was a doctrine that created the belief in individualism and the belief of a transcendent God and a series of laws that governed the universe that are not seen in the apparent, visible world. It embodied support for the doctrine of universal human equality and dignity. As many philosophers, including Hegel and Nietzsche and Tocqueville, have all argued, you can understand modern liberal democracy as a secularized form of Protestant Christianity.

The question is, with this historical origin of liberal democracy in a Christian society, once liberal democracy is created, is it simply a cultural by-product of the way people live -- their habits and traditions -- in a certain part of Western Europe? This is, in effect, Samuel Huntington's argument, that there is nothing universal about democracy, that it is simply the preference of Europeans that grew up in this particular religious tradition and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pect that democracy will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alternative view, to which I ascribe, is that democracy in a certain sense is like the scientific method. The scientific method was invented by Francis Bacon and René Descartes and other thinkers in Europe four or five centuries ago. Once discovered, it became, in a certain sense, a universal possession and the scientific method does not vary in Japan or in Europe or in Africa or wherever it may be found. You can make a similar argument about the principles about modern democracy, and certainly about the principles of modern market economies; that although it has cultural roots in the West, it has universal applicability. That applicability is one that occurs as a result of a certain kind of complex historical process that starts with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change.

I am a Marxist-Hegelian in the sense that I believe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History“ with a capital ‘h’; historical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over time in a kind of universal process. The reason that that happens at the base has to do with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proceeds in one direction. It does not go in cycles. You do not reinvent the same inventions over and over again. As long as modern science progresses in one direction, it is going to present a horizon of economic production possibilities that make the process of economic modernization a coherent thing.

It happened the same way in Korea as it happened in Japan, Germany, England and the U.S. That process of economic modernization goes through certain well understood stages and produces certain kinds of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tend to make the convergence of societies greater as development occurs. That is the reason we are sitting in a room like this with everybody dressed in business suits, running institutions that are not that different here in Korea than they are in the United States or in Japan or in Western Europe. It is ultimately technology and the economic homogenization that that technology engenders that guarantees that modernizing societies will look increasingly similar on an economic level.

The next stage of this modernization process affects politics. Technology affects the economy, and with highe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you get an increasing tendency to create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Generally speaking, the cut-off point for having a successful, relatively stable democracy is approximately US\$ 6,000 in GDP in purchasing power parity (PPP) terms, a threshold that Korea crossed sometime in the 1980s. It is not therefore an accident that Korea democratized, more or less, in 1987.

I am a political scientist, and unlike economists and natural scientists we feel somewhat bad because our science does not actually produce a lot of universal laws. But one of the few universal correlations, if not laws, that political science has been able to come up with is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le democracy; that if you look around the world, the most developed societies tend also to be democracies. You see throughout Asia pressure for increasing democratic participation as per capita incomes rise and as societies adopt modern technology and the higher levels of education that are needed to sustain that technology; they develop property rights and an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ose property rights. So we have technology that influences economics that in turn influences the nature of politics. This is largely invariant no matter what part of the world you go to.

The final aspect of modernization has to do with culture. In a sense this fourth element, at the extreme end of this development machine, is the one that is the least affected and where convergence is weakest. I do not for a minute believe that Davos Man is going to become the universal cultural archetype that will govern all societies in the future. I think that cultural differences are persistent and strong. I do not think that they necessarily determine the nature of politics, as Lee Kwan Yu tried to argue when he was promoting his thesis about Asian values.

But I do think that every society has different ways of approaching cultural aspects of everyday life relating to family and gender relations, as well as other social relations in which different societies are embedded. Those aspects of culture are not going to disappear and in many ways will prove remarkably durable. What happens in a modernizing society is not that culture disappears but that the scope of cultural differences narrow in a certain sense and that culture is put into a box where it is disconnected from political life. This is what we mean by the secularism of modern politics; that in a modern society religion, for example, does not disappear. It has not disappeared in any modern society. But there is an agreement among the participants in that society not to let religious values determine the structure of political or economic institutions, as they once did in the Christian West.

People can have cultural views, they can participate in religion, they can have a spiritual life, but they have to do it in the sphere of their private lives and not as a matter of politics. That is the final cultural characterization of a modern society, that it has a secular political order in which there is an agreement to keep these deep, fundamental cultural values out of politics and to enjoy them in a completely different sphere. So there is not convergence, but there is at least convergence on the principle of secularization.

I have now described this mechanism that leads from technological change to economic convergence to political democracy to a certain form of secular politics.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model will hold up across all the different cultural groups that Huntington describes in his clash of civilizations? Are there parts of the world which, for cultural reasons, are more resistant to this process of modernization than others? Let me just take you on a brief tour around the world. Let us begin with this part of the world, Asia.

I do not believe that there are any fundamental cultural values or norms in Asia that will prevent this modernization scenario from playing out. In many ways your own country, Korea, is the best example of that. It has gone through a process of extremely rapid economic

modernization. Every time I visit Korea, people worry and complain about the nature of Korean politics. But I believe that the democratic institutions that have been created here and their degree of success is quite remarkable, given the relative youthfulness of democracy in Korea. You have really done an extraordinarily good job. On a cultural level, no one would ever confuse a Korean for a Japanese, Chinese or American. But in a sense, there has been the same kind of willingness to put culture to one side and to adopt the necessary institutions of a modern society in order to go ahead and enjoy the benefits of a higher standard of living and modern technology, to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and so forth.

I really do not believe, despite what Mahatir Mohammed and Lee Kwan Yu have argued, that there is any other Asian society that will ultimately resist this process of modernization. Asian values were put forward by various politicians in Asia as an excuse for justifying their own form of authoritarian government. But when China reaches the same level of per-capita GDP that Korea enjoyed in the 1980s, I think it is going to feel exactly the same pressures for political democracy that Korea, Taiwan, Japan, or any of the earlier developers felt. That applies to Singapore as well.

In fact Asia had certain cultural advantages in this modernization process. Religion and culture in Asia were tolerant in a way that they were not in any of the great monotheistic religions: Islam, Christianity or Judaism. There has always been an ease in the mixing of religious traditions of Confucianism, Buddhism, Shinto and Daoism in this part of the world.

Africa's problems have very much to do with very bad government and the lack of any kind of fundamental political stability. I do not think there are any fundamental, cultural obstacles to modernization in that part of the world.

If you go to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 problem they have with modernization, transition to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s really not a cultural one. It is a matter of bad execution and the absence of certain cultural habits that enable markets and democracy to work effectively. But it is not a cultural resistance to the end point of democracy and markets. Most people, and especially younger people, in that part of the world would affirm that that is exactly where they would like to end up. They may not be able to achieve it, but certainly the objective is very clear.

Latin America, of course, is part of a European Christian cultural community to begin with, so I think the resistance to modernization in that part of the world is a very complex mixture of poor

institutions, bad policies and certain other kinds of cultural habits that prevent the rapid transition to modernity of the sort seen in Asia. But it must be said that there are success stories like Chile and hopefully Mexico, where that transition will occur.

That brings us to the Islamic world, where I think you can make the strongest argument that there are, in fact, cultural conditions that have been relatively more resistant to modernization than in the other areas. This is one of the other reasons that I have always thought that Huntington's clash of civilizations paradigm tends to apply more to the Middle East and the Muslim world more broadly than to any other cultural group.

The Islamic world, though very sophisticated as commercial societies and certainly having extraordinarily rich cultural backgrounds, has ha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some of the basic institutions of modern societies. Apart from Turkey, there has not been a successful liberal democracy in the Islamic world. The Islamic countries that have modernized are, in a way, the ones furthest away from the Arab heartland, that is to say countries like Indonesia and Malaysia where the form of Islam practiced is somewhat different.

Most importantly, the Islamic world is the only major cultural area that has over the past couple of generations repeatedly produced people like Ayatollah Khomeini, the Wahhabis in Saudi Arabia, Osama bin Laden or the Taliban, who are not just critical of aspects of Western policy, but in a certain sense reject the whole process of modernization lock, stock and barrel. The Taliban do not want modern, Western consumerism. If you look around the world, the strongest driving force of modernization in virtually every poor country is poor people's desire to own a television set, a washing machine, to have a place of their own, to have a little bit of property. Here you have a religious group in the Middle East that simply argues that consumerism itself is a sign of decadence and corruption.

Where does this resistance come from? How fundamental is it? What is its future? In a sense, that is the chief issue. The ideological issue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is form of radical Islam that makes it particularly problematic in world politics. The basic element of that ideological difference is the difference over secularism. All of those radical Islamic groups I just mentioned reject the principle of secular government. Their major political objective is to create Islamic societies in which religion dictates the shape of politics. They do not, by any means, represent a majority of the Muslim world. There are plenty of people in the Muslim world that are perfectly happy with modernization, that want secular societies, that

accept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ization that I laid out, that want democracy, that want markets. But there is this minority that rejects it.

What are the causes of this? This is a point at which I would have to plead ignorance because it is not an area where I have great expertise. My suspicion is that there is not something deep and fundamental about Islam as a religion that produces this outcome. I say that by looking back at past history. If you look at the centuries of Ottoman rule, for example, in the Middle East, you had actually an empire that was remarkably tolerant. The Ottomans introduced the Millet system in which local communities of Christians or Jews were allowed to keep their own religious practices and traditions. You did not have this kind of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Quran that was intolerant of other different heterodox traditions as you do among modern Islamic radicals. All of this tells me that Islam is a complex cultural tradition just like Hinduism, Christianity or Confucianism that can actually act as a support for a broad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political systems. There is nothing deeply anti-modern about Islam as a religion.

There is, however, a problem with the modern interpretations of Islam that have emerg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at have produced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It is fed by the so-called deep causes, by the poverty and alienation and political stagnation of many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Arab world. When mixed with religion, it forms the core of the kind of Islamic radicalism that you see. I have argued in the Davos issue of Newsweek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at radical Islamism is a form of fascism. It is an appeal to earlier traditions that are very intolerant, that combine older traditions with modern political organization and, in a way, respond to the same kind of alienation and displacement of traditional communities that European fascism di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nd what will we do about it? First of all, this is not the wave of the future. Modernization is a juggernaut that will continue. In a way,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has emerged in response to the very threat that the appeal of modernization has to people in that region. Ultimately, that battle is one they cannot win. In the shorter run, there are some hopeful signs. One sign is the progress of the military campaign in Afghanistan. It is unfortunately the case that in world politics, legitimacy frequently follows power. The Nazis were not delegitimated because their ideas were just so terribly bad. They were delegitimated because the Allies crushed Germany, occupied its territory and basically ended that regime.

The victory over the Taliban in Afghanistan will have a similar effect 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People like winners. As long as Osama bin Laden looked like he was a winner, he could attract a lot of support in the Muslim world. But now that he looks like a loser, I think that is going to undercut his appeal. Therefore, the military action was a very important one that will have ideological repercussions.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because I do not think this war is over yet. There could be further terrorist acts and there could be other phases of the drama. But the military campaign was a basic turning point.

The more important developments, however, are ones that have to occur within the Islamic world itself. Muslim people need to come to grips with this phenomenon in their midst,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It is certainly not characteristic of a majority of Muslims. I think that in a certain sense the present crisis has been an opportunity for many Muslims to confront the kind of Islam they want. There tends to be initially a circling of wagons and a defense of Islam as a religion. But there is a deeper problem that is posed by this very anti-modern strain in Islam. It is really only Muslims that can address this problem. This is a dialogue that has to occur among Muslims themselves.

There is some ground for that dialogue already to start with. We have a lot of evidence that this kind of radical Islam is appealing only in the abstract. It is not appealing to anybody that has actually had to live in a fundamentalist theocracy. We now have two cases of this: Iran and Afghanistan. In each, a group has come to power that imposed this kind of strict Islamic order. As far as anyone can tell, people hate living in these kinds of societies. Iran is a country where 70% of the population are under the age of 30. As far as anyone can tell, none of these younger people want to live in an Islamic republic. I would suspect that Iran may be the country that leads the Islamic world out of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just as it was Ayatollah Khomeini that led them into it in 1979.

You saw the same thing in Afghanistan. All these people flying kites and playing soccer and digging up their TVs that the Taliban had buried, made it very clear that nobody likes living in the Afghanistan of the Taliban. This should also have a salutary effect for other Muslims contemplating what kind of society they want in the future. Pakistan is a country that has been forced by circumstances, by Sept. 11, and by their confrontation over the past month with India, to finally confront the problem of radical Islam within their own society. As far as I can tell, General Musharraf has been taking the right decisions in finally cracking down on these groups and finally saying to his fellow Pakistanis that this form of radical Islam is no longer tolerable. I think this is a process that may occur in other Muslim countries as well.

Let me talk a little about the future and some of the other implications of Sept. 11 that are, in a way, more immediate. Whatever you might think about the Muslim world, I remain fairly optimistic in the long run. There is no fundamental obstacle to a more liberal form of Islam. There are no insuperable long-term cultural barriers, but it is a process that will require dialogue within the Muslim community. It is not something that will happen over night.

Let me shift a little bit toward some other changes in world politics that are implied by the events of Sept. 11. In terms of globalization, none of this will slow down the mental process of globalization. Still, it is going to put a lot of sand in the gears of the globalization machine. Osama bin Laden has imposed, in effect, a transaction tax on every transaction that takes place in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 global economy involves the shipment of goods, people and services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With a security dimension to those transfers of which we are all now aware, it is inevitable that every one of them -- every container, every ship, every airplane that comes through -- is going to have to be scrutinized at a higher level than prior to Sept. 11. It is not going to stop globalization but the transaction cost of operating a global economy will be higher. I am sure all of you who have traveled by airplane since Sept. 11 see my point.

The second implication has to do with what has been called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s demonstrated by the American operations in Afghanistan. I take some satisfaction in how wrong all of the pundits were in the beginning of the Afghan War. Back in early October, when the American campaign began, a lot of journalists and commentators and talking heads were saying that the Afghans defeated the British and they defeated the Soviets and there is no way the Americans are going to avoid being bogged down in a quagmire. Yet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change the regime in Afghanistan in a period of less than three months with only one combat casualty. They were able to do that by effectively working with local allies.

In many ways, those of us in Washington that had been following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re only now beginning to appreciate that the revolution has finally arrived. It used to be the case that air power could not be used against tactical targets, that is to say a target that is, say, 100 metres in front of your front line. It had to be used against strategic targets that were 50km to 100km behind the front. What has changed in the Afghan War is the maturing of a series of technologies that allow a B-52 or a B-2 operating from Missouri or Diego Garcia, flying at 10'000 metres over a battle field, to drop a munition on the front line with the kind of precision that allows it to target one house rather than the house next to it.

This is a military capability that has simply never existed before in modern warfare. It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balance of power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the capability of deploying this kind of military power. I used to work at the RAND Corporation. It was a think tank for the Defense Department and I did a lot of studies abou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ssessment of the outcomes of any conventional scenario changes due to these changes in military capability. It also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opportunities for intervention. It will not face the same kind of constraints as seen ever since Vietnam.

Which brings me to the final question. What is phase two of the American campaign and what happens after the defeat of the Taliban? As all of you are aware,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discussion in Washington over what to do about Iraq. One thing that Sept. 11 demonstrated is that even if there is no provable connection between al-Qaeda and Saddam Hussein, the simple existen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hands of a dictator like Saddam Hussein is a very unsafe situation. A lot of people, myself included, have decided that in many ways this is not a risk that the United States can safely take.

The major military constraints to unseating Saddam Hussein after Afghanistan have largely been prudential ones about military feasibility. Obviously the United States cannot build up a force of half a million men in the Persian Gulf and attack Iraq as it did in 1991.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war in Afghanistan is to make that kind of military operation feasible at a much lower level of effort. It depends on a lot of very complex judgments about the fragility of Saddam Hussein's regime and the kind of internal support that you would get if you were to oppose him.

But clearly, over the next year, that is going to be the chief issue that will be debated and planned for in Washington. Which means, unfortunately, that world politics is not going to go back to normal, the way it was prior to Sept. 11, but that, in fact, there is going to be a continuing struggle. If the problem is this form of Islamic radicalism combin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issue is yet to be solv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Questions & Answers

Q I have two questions that are kind of related. You mentioned modernization has caused people to follow more similar patterns. But I do not believe that we are more similar. Do you believe modernization is going to eventually make people more similar to each other culturally? Secondly, I believe that different regions are experiencing different evolutionary stages. It takes evolution to get them all together. Do you believe that modernization is going to make that evolution turn into a revolution, and take place much faster than what has been the case historically?

A Clearly my answer would be no. We will engage in similar activities. Our institutions will look similar on a large scale. But many of the personal values that we carry into those institutions will be different. Even some of the institutions themselves will vary in important ways.

For example, Asia has certain unique capitalist institutions -- the *chaebol* in Korea, the Japanese *keiretsu* -- which I think are shaped by certain kinds of cultural values. I do not expect all of those to simply disappear and be replaced by a single Western model. Certainly if you get into more personal kinds of values relating to family, marriage, relations between the sexes and these sorts of things, the likelihood that there will be an ultimate convergence is fairly small. It is not desirable either. I do not think that anybody wants that kind of convergence.

As to whether things have been speeded up, clearly there has been a good kind of speeding up in the sense that you now have countries like all of the fast developers in East Asia that have been able to carry out the whole process of modernization with extraordinary rapidity. Korea did in 40 years what took Britain and Germany a good 100 or 150 years to accomplish. The bad side of it is that moder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 certain sense, provides everybody with an awareness of what modernization is without the ability to actually achieve it. So the world has been modernized and speeded up but people still live in poverty and do not really have a way of getting out of it. That is where a lot of the resentment to that process comes from.

Q As far as I understand your argument, you believe that the globalization process does not have any political tendencies. What I mean is, many people believe that Sept. 11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which affects many people who are not able to benefit from the process.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views that we will have to make

some effort to address this problem to harmonize the globalization process. But do you believe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not a politically motivated process, that it is just a neutral process, like a natural order?

A I would never argue that globalization is not a political process. It involves certain kind of value choices. I think that globalization is ultimately a progressive force. It is an avenue for countries to get out of poverty. It is also ultimately the basis for long term political democracy. The trouble is that that is not an automatically guaranteed result, and there are certain negativ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as well. So globalization by itself is not enough.

You need to think of the experience of the 1990s, which showed that what you need is not simply free markets and the economic side of globalization. You need institutions, politics and good government. Without those, economic globalization can actually lead people to be worse off. This has obviously produced a backlash. I am reluctant to lump Osama bin Laden into the same pool as Western trade unionists and environmentalists and other kind of globalization protesters. There are people who are genuinely negatively impacted by globalization, but most of them do not blow up skyscrapers. There is an additional religious element to the mix that helps explain that kind of behavior.

You are right that we ne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way that globalization is implemented. There is a kind of careless globalization that was practiced particularly in Washington in the early 1990s that actually led to a lot of negative consequences.

Q You said that events of Sept. 11 have thrown sand in the machine of modernization because of the economic costs of greater security. What about the effect on civil liberties, the extent to which the trend towards greater human rights for individuals in terms of liberty of the individual may be increasingly circumscribed by the need for protection against terrorism? How is the debate on that going in Washington?

A Actually, the real world impact on civil liberties is probably going to be a lot less than people have been fearing. The whole reason the Bush Administration pushed for military tribunals is that they simply did not want to reenact the O. J. Simpson trial with Osama bin Laden in an American courtroom. That is the chief nightmare that led them to make that decision. The trials of Nazi war criminals was a military tribunal, and nobody objected to the legitimacy of putting Hermann Goering on trial in that kind of a setting.

What we have seen already with Moussaoui, the first would-be terrorist that was

indicted, and now with John Walker just yesterday, is in fac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relatively reluctant to turn to the tribunals. We will have to see, but the threat to civil liberties may be more modest than it might appear because the Bush Administration is more concerned with preparing the ground for certain extreme contingencies, like the actual capture of Osama bin Laden and how to try him, rather than seeing this as a routine way of processing ordinary terrorists.

Q I would like to ask one question. It is related to the thesis of Professor Huntington. He stated that many societies have, or remain, unchang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n Italian writer who said many years ago, "Everything must change. For everything remains the same."

A There is a profound sense in which that is true, that everything changes with modernization. When you look at many apparently modernized societies and you scratch a little bit below the surface -- particularly when you get out of a room like this where you have elites that are quite fully modernized -- and you go down a few levels socially, you will find that what looks like a modern city is actually a displaced village; that, in fact, all the relations that existed in the village have been created in an urban slum neighborhood and that really not that much is different from the way these people interacted with each other 50 or 100 years ago before the modernization process began. That is really true. The more you look at modernizing societies, the more you see the persistence of these kind of habits.

But that's not a terrible thing. In regard to values, what has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is not a great thing. My last book, "The Great Disruption", dealt with the breakdown of the family, the breakdown of trust, the rise in crime rates, a lot of social pathologies and this extreme individualism that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transition to what we now call a post-industrial or information society. A lot of these developments are negative. It's not something that I would want to see replica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Many so-called traditional societies actually have their values better arranged than the United States does, in terms of personal values.

Q Why did the Almighty God let terror happen? Why did God not prevent it from happening? Will God or mankind be able to resolve and prevent the clashes of civilization and world order in your view. Also, don't you think the Oriental civilization has helped, and will continue to help, the improvement of American civilization and world order?

A Why did God allow Sept. 11 to happen? I do not know. I guess you really have to ask Him. It is a question that all religions have faced, this question of justifying God in the presence of palpable evil, and I do not mean to be glib in saying that. I think it is a very profound question and I do not know what the answer to that is. I am not sure whether God will prevent this in the future. But I do think that in the long run, institutions and societies will get better over time.

Q Regarding your thesis about the end of history, I would like to know what, in your opinion, is the next step in China,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know if, in your opinion, genuine democracy is an option for China.

A I am sure a lot of you who are closer to China than I am can probably answer this question better. My feeling about China has always been that with increasing levels of education, the creation of a complex civil society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result from modernization, you will get demands for greater political participation. I just find it very hard to see how you can rule a country of 1.2 billion people in a hierarchical, centralized manner. In fact, in China you are already seeing a kind of de facto federalism and a seepage of power from the center to different parts of Chinese society. The trouble is that the path from getting from here to a more democratic China is not necessarily a smooth one. It could go through a lot of political turmoil as the Old Guard gives up power. I would not want to make any near term predictions on that.

Q Traditionally, going back over the past few centuries, it seems to me that global conflicts have been between nation states. Global conflict today seems to be between individuals or non-state actors. Firstly, how do you address that in your military approach? And, secondly, how do you then deal with the people once you have defeated them or been defeated by them? Do you use purely military or military and legal approaches when dealing with those individuals?

A Nation states are actually still pretty important. We used to think that Osama bin Laden represented a true sub-national terrorist group that did not enjoy state support. The more we have learned about Afghanistan indicates that, in fact, it was not just that Afghanistan tolerated him. He had basically taken over Afghanistan and was able to use the resources of that failed state as a base for his operations. Absent his ability to, in effect, take over a country like that, he would have been much less effective.

I didn't at all mean to say that the methods, particularly at this point forward, have to be military ones. Clearly now you are dealing with a more sub-national set of actors. In fact, Europe is probably the chief haven now for a lot of al-Qaeda terrorists. Obviously you are going to use legal methods rather than military methods to deal with that. That is a lot of police work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so forth.

Q In terms of the Islamic world and how to deal with it in its evolution, the West has been somewhat ambivalent. In the past, the West has mainly supported theocratic governments and has been quite critical of secular governments like Syria and Iraq. But most importantly, if one wants to have better relations with the Islamic world and to lessen resentment, lessen the chances and causes of terrorism, which we all condemn, then there are a number of areas, like the Middle East, Chechnya, Kashmir, and Bosnia, where the West has to come to grips with some kind of equitable solution. Otherwise, even though everyone hopes for liberal democracy, these causes of tension will remain.

A I did not mean to brush over any of those issues. Clearly the Muslim world has a lot of quarrels with the way that America has handled its policy. In terms of a country like Saudi Arabia, which I think probably was what you were referring to when you said that the U.S. has supported religious governments and not secular ones like Syria and Iraq, I think you are right. I also think that Sept. 11 should be an occasion for an important American re-thinking of its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because, in fact, American policy makers, as a result of self-interest and other factors -- primarily self-interest in oil -- have convinced themselves that Saudi Arabia is in fact a so-called moderate Arab state and an ally and so forth. If you look back at the history of the spread of this kind of Islamic radicalism, Saudi Arabia is a large part of the problem and not part of the solution. Therefore, that close relationship needs to be reconsidered.

In general, it is always possible to improve American policy on a whole variety of fronts. I am a little bit skeptical that there is much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done in terms of that kind of policy adjustment that would have satisfied somebody like Osama bin Lade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came very close in the last year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 getting a final settlement to the Arab-Israeli peace negotiations. I used to work on the peace process when I was at the State Department in the 1980s, and the kind of concessions that Barak was willing to make on Jerusalem were just absolutely astonishing. I am not even sure he could have gotten them approved by the Knesset had he put the peace treaty up for a vote.

But supposing that you had an agreement and you had a final settlement that created a Palestinian state, would Osama bin Laden then have turned around and said, "OK. That satisfies my agenda. I'm not going to blow up any more American facilities?"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his grievances go way beyond particular American positions. Short of the United States abandoning Israel and pulling out of the Gulf entirely, I am not convinced that there are many policy adjustments that would have seriously undermined that particular form of radicalism. Clearly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hat will satisfy other, less radical friends and other groups in the Muslim world.

Q Let me follow up on the first question. Let me begin by noting that, as of now, all the rich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Western countries and no non-Western countries belong to this group. On the part of the non-Western, developing, transition countries, one can say that their developmental efforts involve the struggle to overcome a clash of cultures, in the sense of giving up their own local culture in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 I think that is basically what is meant by the acceptance of global standards. We talk about global standards, but they are actually Western standards that we call global standards.

Let us, for example, reflect on the Asian crisis that we Koreans experienced. That crisis, in a fundamental sense, can be said to be attributable to the prevalence of local culture over the global, Western culture. We have, in some sense, overcome that crisis by accepting Western standards and giving up Korean standards. All these standards are basically cultural phenomena.

It appears that right now, the Japanese are engaged in the same battle between local Japanese culture and Western culture. If Japanese culture prevails, I think their economy will continue to stagnate. If they are willing to give up their culture -- by talking about Japanese culture here I am talking about the gerontocracy, the respect for seniority, the emphasis on the value of harmony and consensus -- then they may not be able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So in that sense, if the non-Western countries succeed with their developmental effort and process, maybe they have to give up their cultures in a steady and continuous way? In the end, maybe all prosperous countries will end up under the dominance of Western culture? If they do not, they might remain outside the circle of rich countries. What would you say to that? And, also, please give us your assessment about the current excitement over the long-term future of China. What do you think China's future will be like, say, 20 years from now?

A Yes, globalizing does require some giving up of tradition. Particularly in the sphere of

economic institutions, there is clearly a convergence going on. You are right that the Asian financial crisis reflects the weaknesses in certain Asian economic practices like the *keiretsu*, *chaebol*, and other institutions you referred to. You are right that one of the consequences of the crisis has been to reduce the gap between Asian and Western institutions. That is what I was referring to before, that this process of modernization really does force a convergence over time, particularly in the sphere of the economy.

The question is, however, will that ever lead to a pure homogenization of the whole world and the giving up of all values across the board. I do not think that that is likely to happen for a couple of reasons. First of all, I believe there are a couple ways that one can create modern institutions. The range of variance is not as great as we used to think, but there are some. Lean manufacturing has been imported from Japan into the United States and used very effectively in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as an alternative form of factory organization. I do not think that there will be this complete homogenization. Particularly in the sphere of personal life, as I indicated,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cultural varia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religion.

You asked about the long-term future of China. I don't know. It just seems to me that they way to think about it is not by making these straight line economic predictions but rather by looking at politics. When you start looking at politics,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make predictions.

Q When the attacks occurred on Sept. 11, a majority of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were hawkish and did not want to waste any time building alliances. They just wanted to go after everyone, including Saddam Hussein. I thought, quite frankly, that many of them has lost their minds due to their anger. But having seen how the war evolved and, as you described, the military technology, I see why even rational minds could think in those terms. It was fortunate that the relatively young and inexperienced president relied on the minority voice of Colin Powell. The voice of caution prevailed in the end.

But this still raises a question. In the Orient, we distinguish between cleverness and wisdom. I believe that people are getting more clever. But I do not see a lot of advancement in wisdom over the last thousands of years. Do you see any?

A I am not sure that there was ever a strong tendency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to just run off and do things unilaterally. I think there was unilateralism in the way we handled the Kyoto Protocol and a number of other things. But I think that that can be a bit overstated. The United States, just like any other country, finds that in order to do things effectively it

has to work with friends and allies. The big issue is going to be how to handle Iraq, because if the United States moves militarily there, it will lose many friends.

We can only hope that politicians use this new power wisely. I can see why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ervous by the development of these new military capabilities, because they really are quite unprecedented. But on the whole, American hegemony is different from the hegemony of past empires. People have less reason to worry.

Q According to your great book, “The End of History”, all kinds of big confrontations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have disappeared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You define it as a win for capitalism. But recently, another big confrontation, Sept. 11, happened to the United States, the center of capitalism. How can we make sense of Sept. 11 if we try to understand it in terms of your “End of History” theory?

A As I said, the only sense you can make of Sept. 11 was that this, in a certain way, was a confirmation of the end of history. Modernization is this extremely powerful force in the world and everybody has to contend with it. There are a few people like Osama bin Laden that do not want any part of it. Most people want at least the economic part. He did not want any part of it. The extremeness of his reaction was a demonstration of how vivid the threat is of this kind of Western style modernization.

Q I know that you are a very close observer of Japan and East Asia as a whole. The pessimism on Japan is fairly universal, which is very contrasting to the universal optimism that existed in the '80s. What went wrong in Japan? Compared to Japan, the United States in the '80s was plagued by twin deficits and pessimism. But the U.S. economy then did well in the '90s. So what went right there? Does this have to do with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How do you react and explain this?

A My view on Japan is fairly simple. The basic problem in Japan is a political one. The conservative interest in the LDP captured the Finance Ministry and the economic decision making ministry and it has such a powerful lock on economic policy that no Japanese politician has been able to break it. Koizumi had a chance of doing it, but it would involve splitting the LDP and provoking a really big political showdown. Until that happens, I do not really see the prospects for fundamental change taking place there.

I think it is just entrenched interests and the fact that they never felt themselves to be in a crisis. Korea, in a way, was fortunate that there was a very extreme crisis in 1997 and 1998

that gave the political leadership good grounds for taking fairly dramatic economic reform measures. To this day, most Japanese do not believe that they are in a crisis to begin with.

In the United States, the success is somewhat mysterious. Institutions are flexible and the convergence of institutions and technology led to this remarkable performance in the 1990s. But it is so easy to get overconfident about your success in one decade and think that it will carry over into the next. I would not say that there is some deep reason for that happening. I think we suddenly got lucky.
